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조영식
주간 이석우
편집장 엄홍준
인쇄인 허수남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 0095, (963) 5849
FAX(963) 5849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5)5702 (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0331) 280-2238

제1006호 〈주간〉 1992년 9월 21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12일 창간) 【1】

이성일군 용성총련 의장 권한대행

18일, 본교서 개최된 제6차 대의원 대회서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 대의원대회가 지난 18, 19일 양일간 광대시청각실에서 개최되었다.

전야제인 18일에는 대의원대회에 앞서 애국선봉대 총회 및 발대식이 진행되었으며 애국선봉대건설경과보고와 선봉대 회칙등이 인준되었다.

이어 애국선봉대 대장에 김종민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선봉대장이 선출되었다. 이어 대의원대회에서 이성일(원자력과·4)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이 용성총련 의장 권한 대행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축하공연부 분임토의를 거쳐 상반기 사업총화와 92년 대선투쟁방침과 관련된 하반기 사업계획등이 논의되었다.

하반기 사업계획중 자주학원건설을 위한 학원자주화 소위원회의 사업기조는 학교법 합의서 이행촉구투쟁과 학생회단일분쇄투쟁등을 힘차게 벌일 계획이라 한다.

또한 3기 조국통일위원회 하반기사업은 국가보안법어기기와 통일소모임운동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이튿날인 19일 오전9시 대의원 대회에 분임토의 내용등 총화하고 폐회식을 마친뒤 성남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석방, 관권 부정선거비리등에 관한 가두 선전전을 가졌다.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이하 서총련) 대의원 대회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본교에서 거행되었다.

서총련은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1백여명의 서울지역대학 대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애국의례를 시작으로 서총련 강령 규약 검토, 의장단 등입, 총노선 토론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발표된 92년 하반기 총노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운동에 기초해서 적극적인 선거참여전술 실천 △대중운동 활성화를 위해 민중운동진영과 민주대연합 구축 △내선에서 정권교체의 대중적 토대 건설 손인호(서강대 총학생회장) 서총련 의장 권한 대행은 "이번 대선에서 민중의 거대한 바다를 이루어 참관교체를 이루어 민주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대선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서울 수강신청·병사업무 조정

업무단일화와 신속처리 위해

서울캠퍼스는 93년 1학기부터 수강신청 관련업무와 병사관련업무 담당부서를 변경한다.

수강신청관련업무는 현재 교무처 교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수강신청과 성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무처 학적과로 이관하고, 군입대 휴학, 군복무 단축 병사상담 등 병사관련업무를 학생처 취업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민원업무 통합을 위해 교무처 학적과가 전담한다.

체과대, 경희철인 경기

23일까지 단대학생회로 신청

체육과학대는 오는 28일 '제1회 경희 철인 경기대회'를 체과대 앞에서 갖는다.

강인한 체력육성과 경희 기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경희철인상(대회명)'은 수영, 마라톤, 모래주머니 달고 달리기, 장애물 등 5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경기방식은 참가자중 남·녀 각각 8명씩 최종 선발한 후 토너먼트로 진행하는 원탁제임으로 최종 우열을 가린다.

참가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각 단과대학생회에 받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티셔츠를 증정한다. 한편 남녀 각3명에게 메달이 수여되며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남자 1등:1백만원 2등:50만원 3등:30만원

△여자 1등:40만원 2등,3등 : 부상

의상학과 졸업작품전

의상학과 학생회는 오는 25일 크라운관에서 '제12회 의상학과 졸업작품전'을 갖는다.

'이미지와 필링(Emage and Feeling)'이란 주제로 43명의 4학년 학생들이 그동안의 창작품 2백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작품전은 의상학과 졸동창회가 후원하며 (주)모델라인의 협찬을 받는다.

기무사 학원사찰 행위 여전

지난 19일 본교 서총련 대회중 확인

국군기무사령부가 학생사위의 동향탐지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오후 6시경 정문앞에서 기무사 대공처 석희용(33)중사등 수사관 3명을 학생회관으로 연행하여 자술서를 쓰게 하였다.

석 중사등 수사관의 소지품에서는 학생운동권의 활동상황을 기록한 메모가 발견되었으며 이 메모에는 이달초 서강대에서 서총련 주최로 열린 노태우 규탄대회에 이들이 집회 참가자를 가장해 들어가 진행상황을 시간대별로 파악한 내용이 적혀 있는 메모도 총학에 의해 확인되었다.

최초 학생들의 신문제시 요청시 석 중사 등은 위조증명필보 기자증을 제시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기무사 요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서총련 대의원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총학생회는 이들을 학생회실에 붙잡아 놓고 자술서등을 받아낸 뒤 이날 오후 10시경 돌려줬으며 압수된 소지품은 모두담으로 넘겼다.

체육진흥기금 마련 위한 자선공연

내달 2일 재단·학생회등 주최

경희한마음 추진 위원회는 '경희체육진흥 기금마련을 위한 자선공연'을 다음달 2일 오후6시부터 노천극장에서 개최한다.

총학생회와 재단, 학생처, 총동문회 후원으로 열릴 이번 자선공연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기금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 총3부로 구성된 이번 자선공연의 1부는 총학생 공연과 체육계 인사및 장기자랑이 마련되며, 2부에서는 본교 출신 연예인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자선공연의 수익금은 체육기금으로 쓰여진다.

교무처 수강희망 설문조사 실시

교무처는 오늘부터 알주일간 93년도 1학기에 반영될 수강희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강희망 조사는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자유선택, 공통교양, 제2외국어, 총6개부문에 걸쳐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에 대해 실시된다.

제11회 세계 평화의 날

지난15일, 광릉 평화복지대학원서

본교와 국제연합 한국협회는 지난 15일 광릉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제11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UN사무총장이 파견한 특사 에릭젠센 씨와 루에르 토리고의 칼레 하나 세계대학총장회(IAUP)회장, 러시아의 알렉산더 M. 프로로로프 노벨상 수상자 등 25명의 저명인사가 참가하였다.

총노부로 구성된 이날 기념식의 1부에서는 유종열 국제연합 한국협회 사무국장의 개회선언과 조영식 총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2부에는 라종일(정경대·정치학) 인류사회재건연구원장의 사회로 에릭 젠센씨의 특별강연이 있었고, 3부에는 평화의 탑 헛불점화식이 있었다.

이번 기념식에서 조영식 총장은 "인간이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 인류는 하나가 되어 지구촌에 공동규범과, 공동목표, 공동과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대개혁·교통해결위 구성

버스·전철유치 위한 서명운동도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발전의 전망을 제시하고, 시급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대개혁 실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하였다.

이번 대책위는 앞으로 교육대개혁 정책연구 및 전철유치와 다양한 대중교통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서명운동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기무사요원이 가지고 있던 수배자 명단(원안은 전대협의장 권한대행인 박홍근 본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서울매점 일방적 계약위반

인복위 구체적 대응책 마련 예정

서울캠퍼스 인공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에 계약한 학내 매점업주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94년 8월31일까지 임대하는 매점등 각종 복지시설의 업체들은 지난 8월 18일과 25일 일반공모입찰 및 수의 계약에 의해 선정되어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식당의 경우 주방시설의 청결, 메뉴의 다양화, 1일3식등 종전에 비해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학내 매점은 종전과 시설면에서 개선된것이 없으며 계약서마저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매점 업자들이 위반한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내매점 판매가격은 시중 슈퍼마켓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판매품목의 가격표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판매금지 품목:백반, 차(커피등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차 종류 일체), 껌 △위 사항을 위반하여 2회 경고시 입대료를 10%가산 납부하여 한다.

이에 인복위는 지난 16일 오후 7시 인복위 사무실에서 매점 업자들과 가격인하와 계약서 위반에 대한 협상을 가졌다.

매점 업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여 가격표시를 명시하겠으나 전 품목은 불가능하다며 인복위의 전 품목 가격인하에 반발하였다. 이에 원관희(사학·4) 인복위장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가격으로 조정하겠으나 업자들이 계속해서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중반안을 밝혔다.

대학가 향학 문화 이대로 좋은가

▼대학촌이라면 반드시 갖춰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가지가 제시될 수 있겠지만 서점과 값싼 상점이 필수적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촌이 과연 두가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후향적인 소비 문화가 대학촌에도 침투하여 유흥업소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서점을 밀어내고 있다.

▼패스트 푸드, 인스턴트 문화세대라는 세태를 반영하듯 대학가는 낭만적인 옛 정취를 잃어버리고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기 쉬운 거리로 변모해 버렸다.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풍기던 서울대 주변은 이제 '신림 리젠트론'이라 불릴만큼 타락(?)해 버렸고, 대학이 밀집해 있는 신촌의 화려함은 강남을 방불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본교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당구장, 술집, 노래방, 락카페, 여관 등 학업과는 무관한, 아니 악영향을 미치는 유흥업소가 학교 주변 곳곳에 남립하여 유흥가를 방불케하고 있다. 작년 초만해도 보이지 않던 노래방과 이름마저 생소한 락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성업중이다. 외색문화에 대한 경계와 비판의식이 철저해야 할 대학 주변에서 이들 업소가 호황을 누리는 현실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들 업소의 주고객이 본교 학생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실제로 락카페에서는 남여 고교생들이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고객이 누구인가를 떠나 그러한 업소가 본교 주변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다. 아늑하고 싼 곳이 많아 근처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온 본교 캠퍼스는 언제부터인가 우범지대가 되어버렸다. 불량한 구제적 사진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으려니와 그러한 일이 술취한 고교생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개탄을 넘어 슬픈 현실이다.

▼대학가의 유흥가화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생이 앞장서야 한다. 한양대에서 락카페가 생겼을때 총학에서 보이콧을 통사해 락카페가 사라지는 실효를 거둔 사례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촌 일대의 대학가에서도 올바른 대학문화 건설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교 차원의 대대적인 운동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생들 스스로 유해업소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학회와 동아리의 강화, 일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대학주보기획광고

자! 우리 이제 손을 잡읍시다!

"함께"

불신과 반목으로 얼룩진
시대는
이제 우리의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해
함께일구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러한 삶
경희가 이룹시다.

대학주보사

경희의 정신은 '평화'와 '사랑'입니다. 함께 하는 세상을 위해 경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건강한 삶으로 우리의 참모습을 일궈나갑시다.